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有感

지난호 출판저널에 실렸던 「토픽으로 보는 1990년의 출판·출판계」 기사와 관련하여 한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무명시인들의 통속시집 이상 열기'란 소제목 아래 "문학적 이력이나 인적 사항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시인들에 의해 씌어졌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시집의 하나로 예시됐던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를 펴낸 출판사 측으로부터였다.

그에 의하면 「눈을 감으면...」의 시인은 결코 '무명'이 아니며, 내용 또한 출판저널의 지적처럼 "말초적 사랑타령으로 청소년독자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작성자가 과연 그 시집을 읽어보거나 했는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는 그 시집을 읽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고 써야 기사가 잘 써진다"는

(어쩌면 무책임하기조차 한)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로 폭주하는 출판물량의 엄청난 크기도 크기 러니와, 이 경우 '독서' 보다는 '취재'에 의해 기사가 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기사는 개별리스트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기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학관의 전문가들이 내린 기왕의 평판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씌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담당기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눈을 감으면...」의 시인은 "1952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경기여고를 거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詩文學」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에 「용알이」「작은집」이 있"는 시인으로서 단지 덜 알려졌을 뿐 '무명'은 결코 아니며, 이같은 사실은 시집의 표지를 넘겨보는 성의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록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여기서 언급할 만한 일이 못되는 것 같다. "주로 청소년층을 겨냥해 사랑과 만남, 이별 등의 소재로 일관하고 있는" 기왕의 통속시집들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시집 뒤에 붙인 평론가 윤재근씨의 해설처럼 "詩心이 詩想을 신선하고 생생하게 맛도록 詩像을 정갈하게 집어내어 만들어진" 시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하지만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출판사든 시인이든)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기사를 기왕의 평판만 믿고 경솔히 다룬 잘못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의 평판들이 과연 옳고 정확한 것인지까지 살피는 섬세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왕의 평판들에 이끌려가기보다는 그 평판들에 영향을 끼치는 매체가 되어달라"는 「눈을 감으면...」의 출판사 대표의 주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했다.

—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통권 제75호/1990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全惠敬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전산사자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金炳翼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彦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中福龍 | 慎鍾廈 | 安永承 |
| 安輝潯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瑋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助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靛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奭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鎭弘 | 曹大鉉 | 崔鍾庫 | 韓相震 |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黃鉉產 |
- (가나다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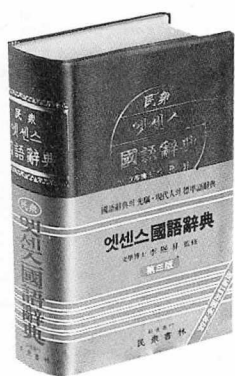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문제의 정답을 1월1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7호(2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民衆어센스國語辭典」(정가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책이나 문자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다음 각항의 문제를 읽고 맞는 답을 골라 주십시오.

문제 1

漢字의 가장 기초적인 字形을 보여주는 甲骨문자는 거북의 등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글자를 새긴 것으로, 1899년 왕희영이란 중국인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약 1800여자가 해독된 바 있습니다. 이 갑골문은殷나라 시대 중국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는데, 다음중 어느것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까?

- ① 제왕의 업적 칭송한 서사시
- ② 왕후장상들간에 오간 편지
- ③ 길흉을 판단하는 점복술
- ④ 고대 부족국가의 禁法

문제 2

종이가 등장하기 이전의 책의 재료로는 대나무를 쪼개어 엮은 竹簡, 비단을 사용한 絹帛, 갈대줄기를 원료로 쓴 파피루스, 짐승의 가죽을 무두질한 양피지, 진흙을 빚어 만든 점토판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 1830년 앗시리아의 폐허에서 발굴돼 거기 새겨진 실형문자들로 고대 바빌론문명의 비밀을 캐는 결정적 단서가 됐던, 이른바 '니네베도서

관'의 3만여 '장서'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 ① 죽간 ② 파피루스 ③ 양피지 ④ 점토판

문제 3

문자 이전의 표현방법으로 선사시대의 인류가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억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중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일부에선 사용되고 있는, 끈이나 짚의 매듭으로 의미를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結繩(Quipu)
- ② 色貝(Wampum)
- ③ 刻棒

제73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3호(11월20일자) 독서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74통, 이중 정답자는 51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

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 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① 鄉藥集成方 — ②
- ② 玆山魚譜 — ④
- ③ 書雲觀志 — ①
- ④ 五洲書種 — ③
- ⑤ 九數略 — ⑤

당첨자

정명숙(부산직할시 서구 초장동 65번지)

기은아(광주직할시 서구 월산2동 146-46 4동3번)

정정철(충북 충주시 칠금동 433번지)

박은숙(서울시 도봉구 번1동 469-77 26동 1번)

최현호(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93-6번지)